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일본 지진과 미국 경제의 영향

- 일본 지진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,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진은 유가, 원자재가격, 농산물가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.
 -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수입국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산업생산 둔화로 초기에는 유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나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유가 상승압력을 초래해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유가 상승도 유발할 수도 있음.
 -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, 건물, 공항, 항만 등 수 많은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복구작업이 시작될 경우, 미국의 수출품인 시멘트, 플라스틱,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.
 - 많은 농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농작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,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밀, 콩 등의 농작물 가격 상승은 미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.

- 일본 자동차회사의 미국 내 공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공급차질로 핸드폰 생산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며, 일본정부의 미 국채 매입여력 감소로 이자율이 상승할 수도 있음.
 - 지진 이후 일본 자동차 회사의 일본 내 공장들은 부품 공급 차질, 운송문제 등으로 생산 속도를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나, 미국 내 공장의 경우 부품 중 20%만이 일본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 - 도시바, 캐논, 후지쯔, 파나소닉, 소니 등 IT기업들도 일본 내 일부 공장에서 생산 중단을 겪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반도체와 메모리칩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애플, 모토로라 등의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.
 - 한편 일본은 미국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채권국이기 때문에, 지진피해복구를 위해 자국에서의 지출을 확대할 경우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.

(Chicago Tribune 등, 3/15)